

안녕? Pangasinan!



Philippines 팀 3월 보고서 (2014.03.06-03.31)
김태수 · 김솔이 · 백수민 · 김민재 · 정수진

목차

- 3월 활동 내역
- 아띠들이 팡가시난에 오기까지
- Roanatti로서의 삶
 - Atti들의 공식 활동
 - Part1. Pugaro
 - Part2. Dumpsite
- Atti들의 Daily life
 - 날씨
 - 물
 - 음식
- 이달의 추억
- 개인 에세이

3월 활동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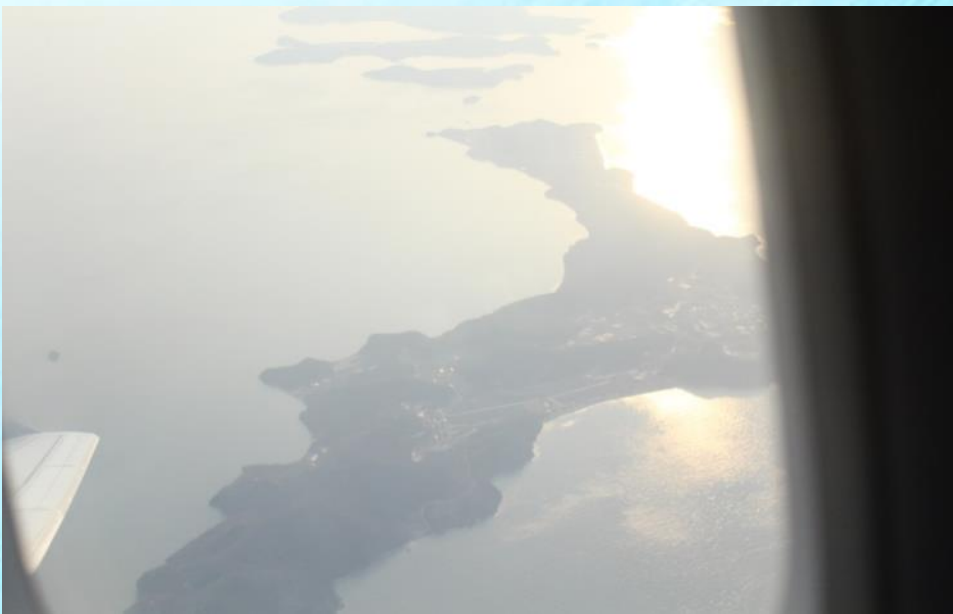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	3	4	5	6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온아띠 11기 출국 전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온아띠 11기 출국 전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마닐라 관광 -SAN AGUSTIN MUSEUM -FORT SANTIAGO -RIZAL P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shop Tex 만남 -오리엔테이션 1. aculturation:: build up 2. inculturation :write diary (내지화) 3. creativity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ngasinan, Dagupan city 도착 - Pangasinan YMCA 첫 만남,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
9	10	11	12	13	14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gupan city national high school 방문 라온아띠 활동 Orientation1 Tagalog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Barangay Pugaro 첫 방문 Bonuan Dump site 첫 방문 Raonatti 활동 Orientation2 English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ngasinan YMCA president Mee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Pugaro daycare center 시연 수업 Pangasinan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Dumpsite 방문 Meeting with Engineer. C at Tondaligan beach Pangasinan YMCA Board mee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Water proposal Seminar at YMCA -Making a placard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16</p> <p>휴식</p>	<p>17</p> <p>Pugaro daycare center 시연수업 - 몸놀이</p> <p>Bible sharing</p> <p>Tagalog class</p>	<p>18</p> <p>Meeting at WMD(waste management division) office</p> <p>Meeting with Farah Decano, Dagupan city administrator</p>	<p>19</p> <p>Dumpsite 방문 - first aid (Dump site 화재)</p>	<p>20</p> <p>Barangay Santa. cruz 방문</p>	<p>21</p> <p>Dump site 방문 - Hygiene education</p> <p>Visiting Allen's house</p>	<p>22</p> <p>Discussion</p>
<p>23</p> <p>Meeting with Sir. Pablito</p>	<p>24</p> <p>Visiting Pugaro integrated school - Proposal letter for place</p>	<p>25</p> <p>Dump site - first aid</p> <p>* NO ELECTRICITY!</p>	<p>26</p> <p>Renewal VISA</p>	<p>27</p> <p>Making soccer goal posts at Pugaro</p> <p>GMA Interview(ON AIR)</p>	<p>28</p> <p>Dump site - Hygiene education - First aid - Atti klasse - Feeding program</p> <p>TONY'S surprise birthday party</p>	<p>29</p> <p>Jeremy's graduation - Visiting LINGAYEN</p>
<p>30</p> <p>휴식</p>	<p>31</p> <p>Making soccer goal posts at Pugaro</p> <p>Discussion</p>					



아띠들이 팜가시난에 온기까지 ...

아미들이 팡가시난에 오기까지 ...



1. Becoming Pangasinan

2014년 3월 6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한 팡가시난팀 다섯 명의 씨앗은 3월 8일 Pangasinan, Dagupan City에 뿌리를 내렸다. 지난 3월간 다섯 씨앗이 경험한 팡가시난, 그리고 필리핀은 저마다 다른 다섯 가지의 색깔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있다.

막내 씨앗 수진이가 본 필리핀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도시적이고 편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이런 모습을 보며 필리핀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경험을 했고, 수민이가 경험한 필리핀은 처음엔 어지럽고 무질서해 보였지만, 한 달여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여유로운 필리핀을 만끽하며 느낌의 미학을 발견해가고 있다. 민재는 너무 더운 필리핀의 열기에 한 번 눕고, 현지인들의 열굴에 꽃피는 미소로 두 번 눕고 있다. 태수는 도심에서 트라이시클과 지프니가 내뿜는 쉼쉼한 매력이 아직 익숙지 않아, 얼른 자연 속으로 들어가 조용한 마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다. 솔이는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팡가시난이 늘 비릿한 냄새가 풍겨 처음에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에 살면서 많은 Pangasinan들을 만나고 Pangasinan의 색다른 매력을 찾아가면서 Panagasinan과의 사랑에 빠졌다.

I'm Pangasinan, I'm from Pangasinan and I speak Pangasinan.

- Farah / Dagupan City Administrator

2. Masantos ya kabwasan, NEW PANGASINAN

2014년 3월 8일, 마닐라에서 4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팡가시난, 다구판 시티에서 우리는 Pangasiana YMCA와의 첫인사를 나눴다. 파갈로그어와는 또 다른 팡가시난어 'Masantos ya kabwasan!'를 외치며 해맑은 미소로 다섯 명의 새로운 아띠들을 맞이해주었다. 어색한 순간도 잠시, Y의 스텝, 자원봉사자 그리고 Y 장학생들이 모두 모여 우리의 이름을 불렀고, 맛있는 음식과 흥겨운 노래로 시작한 환영식은 평소 우리 팡가시난팀이 가지고 있던 유쾌한 분위기와 잘 어울려 환상의 궁합을 만들어 냈다. 예상치 못했던 Y 식구들의 환대로 우리는 한 순간에 이곳 Y의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환영식에 이어 팡가시난 Y의 일원이 되기 위한 Group Activity를 통해 'Enjoy, Learn, Serve'라는 Y의 가치를 배웠고, 늦은 밤까지 Pigar-Pigar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친구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팡가시난팀은 'New Pang'으로서의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3. So now, Tell Me Truth.

17개월의 길고 길었던 국내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정말 필리핀에 떨어진 팡가시안팀. 도착한 이상 배드 박도 못 할 테니 '이제 정말 진심을 말해봐' 나눴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소진', '라운드아피에 지원한 진짜 목적과 동기'를 키워드로 밤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라운드아피에 합격한 후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천 번도 더 들었을 '동기가 무엇이니?'라는 질문에 이제는 팀원들의 동기를 서로 대답해 줄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을 진짜 이유가 다들 하나씩은 있을 터. 밤새 뜨거운 열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다보니 우리는 어느새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어있었다. '나'의 솔직함이 '팀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만들고 더 견고하고 단단한 '팀'을 만들게 된 것처럼 앞으로의 New Pang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물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비밀! :b



Part 1. PUGARO

I. Barangay Pugaro ?

II. Team Pangasinan at Brgy Pugaro

1. Barangay Pugaro ?



Bonuan에서 5분 정도(downtown fort에서 20분 거리) 떨어진 섬으로, 작은 어촌 마을이다.

Pugaro에는 Pugaro integrated School 과 Pugaro Daycare Center 두 곳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주로 어업이나, 배를 이용한 운송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Pugaro는 섬이라는 특성상 쓰레기 투기, 매립에 관한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모래 토양으로 인한 수목리 부족으로 Tree growing을 계획 중에 있다.

3월에는 Pugaro Daycare Center을 3차례 방문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계형성, 몸놀이, Art Class 등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4월에서 6월까지 여름방학으로 인해 11기 파강가시난 팀은 Pugaro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Pugaro Integrated School에서 교육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II . Team Pangasinan at Brgy Pugaro



1. Pugaro Daycare Center 시범수업

1) 관계형성

Daycare Center의 아동뿐만 아니라 Pugaro마을의 지역 주민들을 만나 11기 팡가시난팀을 알리고 소개하였다.

2) Daycare Center 시범수업

<Art class>

코디네이터 Alen을 중심으로 교육보조로 참여하였다. 각 분 단에서 5-6여명의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며 도형과 색을 학습했으며, 알파벳 게임을 통해 다시 한 번 아티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몸놀이>

교육보조가 아닌 교육진행자로 참여했던 첫 수업이었다. 안양YMCA 아기스포츠단에서 훈련받은 여러 가지 영유아체조를 활용하여 Daycare Center 아동들과 핫한 시간을 가졌다. 한 시간 수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몸놀이를 통한 스킨십으로 인하여 아이들과 더욱 가까워진 시간이었다.



2. Summer School at Pugaro

1) Summer School Program 구성

Pugaro의 전체아이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 될 Summer School Program을 구상하였다. Pugaro Integrated School의 협조를 받아 교내에서 Tony Soccer Class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에 Music Class와 과학교실, 줄넘기, 배구, 발야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 Summer School Program 준비과정

① Pugaro integrated school 장소 협조 요청

Daycare Center의 방학과, 마을회관의 야외장소가 더운 날씨로 인하여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Pugaro integrated school을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YMCA의 이름으로 장소 협조를 부탁드렸다.

② Soccer Class를 위한 축구골대 제작

Pugaro integrated school에 축구골대가 없는 관계로 마을의 대나무를 제공받아 3일간 축구골대를 손수 제작하였다. 전기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얻은 천연자원을 이용해 대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줄로 엮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티들의 축구골대를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방송사 GMA와의 인터뷰를 가졌으며, 라온아티의 이름이 필리핀 전역에 방송되는 기회를 가졌다.

애들아, PUGARO 어때?



<<< 김솔이 단원 >>>

daycare center에서 아이들과 소통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난감한 감정을 느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웃고 있는 모습이 가식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내가 푸가로에 있는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어찌면 라온아띠로서 해야 하는 "business"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느낀 것은 아니었을까?

처음 느꼈던 푸가로의 인상은, 아름다운 섬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광경보다는 낯설고 어렵고, 내 눈에 불편한 것들만 더 많이 보였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미소를 교환하게 되었을 때 풍경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푸가로는 아름답게 보였다. summer school을 이번 달부터 진행해야 하지만 지금도 나는 program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이 마을사람들과 어울리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든다.

애들아, PUGARO 어때?



<<< 백수민 단원 >>>

나는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Daycarecenter에서 활동 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다. 그러나 Daycarecenter의 방학으로 인해 우리의 활동지가 '학교'로 옮겨지게 되면서 교육 대상이 작은 아이들에서 큰 아이들로 바뀌게 되면서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Dumpstie보다 Pugaro에서의 활동이 어렵게 다가온다. 빨리 아이들과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에 summer school program을 어서 빨리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푸가로에 대한 첫인상은 아름다운 풍경보다는 쓰레기가 눈에 더 보였고, 그래서 마을의 더러운 모습이 더 눈에 띄었다. 길가의 동물들 또한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동물도 좋아지고 마을의 전체적인 풍경이 아름다워 보인다.

애들아, PUGARO 어때?



<<< 김민재 단원 >>>

나는 푸가로에 대한 가닥을 잡지 못했다. 지난 한 달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초작업을 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다. 따라서 푸가로에 대한 인상이 아직 깊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만난 것이 푸가로는 처음이고, 자신이 아이들을 좋아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아이들과 교감하는 것 자체가 언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고, 푸가로에서의 아이들에서의 미소가 좋아서 푸가로에서는 마음이 덜 무거워 지는 것 같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라온아띠로서 이곳에 무엇을 하러 온 것인지, 왜 하러 온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이곳에 좋은 친구로서 왔지만 이곳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다.

얘들아, PUGARO 어때?



<<< 김태수 단원 >>>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포커스가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말 자체가 무언가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 문장이 싫었다. 그러나 지난 3월 한 달을 통해 그 문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우리가 하는 활동이나 행동들, 즉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들과 서로 웃고 그것이 즐겁다면 그 자체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4월 한 달에는 더욱 더 재미있게 잘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 정수진 단원 >>>

푸가로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것, 또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좋았고 그래서 이곳에서의 활동이 처음에는 크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책임지고 맡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는 조금씩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Part 2 . DUMP SITE

- I . Dump site ?
- II . Team Pangasinan At Dump Site
- III . 우리들의 고민

1. Dump site ?



1. Dump Site의 현황

Bonuan의 Tondaligan beach 근처에 위치한 Dumpsite 는 Dagupan City에서 배출된 모든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장소이다. 이 곳에는 50-60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Waste Management Division의 관리 하에 Blue House 운영과 주민들을 위한 직업교육, 새로운 주거지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본래 Dumpsite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우연하게 쓰레기를 내다 버린 곳이 Dagupan City의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모하면서 형성된 곳이며, 오래 전에 파산한 Oil Company 또한 이곳에 폐유를 매립하면서 이곳의 지하수와 바다 또한 오염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름에는 더운 열기로 인하여 Plastic 제품들이 자연연소 되면서 유독가스로 인한 주민들의 2차 피해 비율이 높고, 3월 14일, Dump site에서 발생한 큰 화재로 인해 현재까지도 엄청난 연기와, 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2. Dump site를 위한 WMD와 Dagupan City의 노력

Dump Site에 위치한 Blue House는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통해 비용을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WMD에서는 Dump Site가 있는 지역에 Blue House를 운영하여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Dagupan City에서는 쓰레기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를 활발히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 쓰레기를 처리, 관리하는 제도와 기술의 도입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Dump Site 근처에 조성된 WMD Eco Park 또한 Dump site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터전(Bio Remedy)이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쉽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전에 진행되었던 house project 또한 실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고민 중에 있다.



3. WMD와의 인터뷰

✓ Q1 . 라온아띠가 Dump Site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활동

A1 .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 먼저 관계를 맺은 후, 사람들이 사는 환경에 접근할 것. 라온아띠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곳의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Dumpsite 주민이 아닌 라온아띠라는 새로운 인물이 현장에 가서 각자 자신의 경험을 그들과 공유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Dumpsite 밖으로 나와 세상을 경험하도록. Inspire young people First.

✓ Q2 . Dumpsite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이 합법적인가?

A2 . 그렇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정부에서 그들에게 엄격하게 dumpsite에서 사는 것을 규제할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 악영향이 따를 것. 현재로서는 그곳의 주민들이 스스로 dumpsite에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스스로 나올 수 있게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일방적인 압력, 강요가 아닌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



✓ Q3 .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A3 . 이 지역에서는 쓰레기통을 세 개로 분류함. 분리수거를 통해 재생된 종이 등을 학교에 제공하기도 함. 뿐만 아니라 Blue house에서 만든 비료를 판매 중에 있음.

✓ Q4 . WMD에서 생각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A4 . 현재로서 쓰레기 처리 체계, 분류체계가 잘 되어있지 않음, 따라서 쓰레기 배출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책.

II . Team Pangasinan At Dump Site



1. 위생교육

스스로 손씻기, 세수하기, 발 닦기 교육



2. 상처치료

Dump Site 주민들의 상처치료



3. 아띠 클라세

영유아 대상 영어교육, 몸놀이, Feeding program

III . 우리들의 고민

1. 쓰레기에 대한 시각

외국인인 우리가 보기에 필리핀의 쓰레기 처리 환경이 낯설고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다. 쓰레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필리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았다. 한국에서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우리들이 필리핀의 쓰레기 문제만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모순된 시각이라고 느껴졌다. 따라서 필리핀 쓰레기를 부정적으로, 고쳐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중.



2. Dump Site에서 활동에 대한 고민

ABOUT 상처치료

< 위생 >

팀원 각자가 가진 위생에 대한 개념이 달라, 아이들을 씻기고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다.

안전히 멸균된, 정석의 상처치료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처치료라는 '행위'는 Dump site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멸균법만 지키면 된다는 의견이 상충되었다.

수진 : 병원 환경까지는 아니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상처 치료를 하지 못한다면 상처치료는 안하느니만 못하는 정말 '위험한' 활동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때문에 이 아이들의 상처가 심각해지고 악화될까봐 매우 걱정돼. 화상으로 인한 심각한 상처를 가진 아이, 온몸에 피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등 우리 손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상처치료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솔이 : 내가 생각하는 상처치료는 아이들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료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dump site의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시작된 활동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생적이다, 위생적이지 않음을 떠나서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태수 : 지금 단계에서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또 저렇고.
(침묵)

민재 : 나는 수진이 의견에 동감해.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으로 인해 더 악화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고, 진짜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치료했다는 그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치료를 수단으로 여겨서 친해지는 것도 맞는 것이지만, 그 치료가 만약 온전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화될 염려가 있다면 그 치료의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 고민이 되.

수민 : 나도 수진이와 민재와 비슷한 의견이야. 나는 필리핀에 오기 전, 한국에서부터 '왜 상처치료를 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했었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블리 치료한다고 해주었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전염성 피부질환을 악화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정말 상처치료가 그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라면, 나는 오히려 손과 발 씻기 같은 스킨십을 함께 할 수 있는 위생교육 정도까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코디네이터 ALLEN: 너희 라온아피는 이미 이곳 Dump site 아이들의 role model이 되었어.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하는 활동들이 너희들에게 조금 힘들더라도 이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밝게 활동 했으면 좋겠어. 이 아이들은 너희들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항상 웃으면서 반겨주잖아? 나도 이곳에서의 너희들의 활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라온아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곳에서 많은 것을 고치고, 하려고 하다 보면 하지 못한 일에 있어서 더욱 더 실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거친 후 평가시난 팀은 Dumpsite의 아이들을 '치유의 대상', '아픈 아이들', '우리가 꼭 돌봐야 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그저 사랑을 받기 마땅한 평범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 보다는 활동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깨달았다.

3. 그밖의 팡가시난 팀의 고민들 . . .

- 우리는 지금 왜 Dump site에서 이러한 활동(씻기, 상처치료)을 하고 있을까?
- 다른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 행복이란 무엇일까?





Part 3 . Language class

Part 3 . Language class

지난 국내 훈련 기간 동안, 안양에서 Edna 선생님께 열심히 따갈로그어를 배웠던 팡가시난 팀. 드디어 갈고 닦았던 따갈로그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는 들뜬 기대도 잠시 팡가시난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이곳에서 커다란 '언어 장벽'에 부딪혔다.

이곳 팡가시난은 필리핀 공용어인 따갈로그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지역 방언인 팡가시난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팡가시난어는 우리가 배웠던 따갈로그어와 비슷하지도 않다는 것. 즉 아띠들은 앞으로 5개월 동안의 필리핀 생활을 위하여 3가지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Tagalog Class, Pangasinan Class, English Class!

Tagalog Class는 매주 월요일 오후, Pangasinan Class는 매주 목요일 오후, English Class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에 코디네이터 알렌과 현지 친구들의 도움으로 꾸준히 진행 되고 있다.

I . Tagalog Class

- 생활회화 학습

II . Pangasinan Class

- 생활회화, Dump site에서의 wound treatment때 자주 쓰는 문장 연습

III . English Class

- 발음교정 , 자신 있게 말하기 연습





Part 4. 기타

I . Pangasinan YMCA President 만남

II . 포항가시안 Y 이사회 만남

III . WMD office & City administrator 만남

IV. Kuya Pabs 만남

I . Pangasinan YMCA President 만남

아띠들의 필리핀 생활기를 무척 궁금해 하시는 Pangasinan YMCA President인 Edilberto R. Abalos를 만나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II . 팡가시난 Y 이사회 만남

팡가시난 Y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진분들에게 아띠들을 정식으로 소개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띠들을 친딸, 친아들처럼 환대해 주시는 팡가시난 Y의 이사분들을 만나보면서 아띠들은 지난 지역합숙 때의 안양Y 이사회 만남 또한 자연스럽게 떠올렸다고.

III . WMD office & City administrator 만남

1. WMD Office 방문

Dump site에서 활동하면서 생긴 팡가시난 지역 쓰레기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WMD(Waste Management Division)를 방문하였다. WMD관계자인 Sir.Ronan 과 Mam.Rose를 통하여 Dump site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아띠들의 Dump site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고, 앞으로 우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것을 약속해 주셨다.

2. City administrator 만남

Dagupan city에서 거주하고 활동하게 된 우리 팡가시난팀의 소개와 더불어 Dump site와 관련된 Donation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가던 Dagupan city hall. 아쉽게도 바쁜 일정의 city mayor는 만나 보십지 못했지만 대신 City administrator Farah Decano를 만나, Dump site 뿐만 아니라 Dagupan city. 더 나아가 팡가시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IV. Kuya Pabs 만남



(사진이 이것뿐이야... 미안하다...)

지난 3월 6일, 아띠들의 필리핀 입국 날 해외출장 관계로 부재중이셨던 Philippines Y 전국연맹 사무총장 Kuya. Pabs.

필리핀 YMCA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필리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또 서로 너무 보고 싶어서...♥) Kuya. Pabs는 차로 신나게 4시간을 달려 이곳 팡가시난 까지 친히 방문해 주셨다.

라운아띠가 이곳 필리핀에서 가져야할 '라운아띠로서의 마음가짐'과 필리핀에서의 생활 Tip, 어느 전문 서적보다 더 자세했던 필리핀 국가 소개 까지.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는 Kuya Pabs에게 Salamat pa:)



Atti's Daily life

Part I . 날씨 (평균 24도~36도)

필리핀의 계절은 Summer(3월-5월), Winter(11월-2월), Rainy season(6월-9월)로 구분된다. 4월에 접어든 팡가시안 팀은 '여름'이라는 계절답게 하루하루를 찜통같은 열기 속에서 보내고 있다. 해가 지면 가끔 선선한 바람이 불지만, 대부분의 날들이 고온다습해서 '뽕송뽕송'하다는 느낌을 떠올려본지가 오래다.

게다가 주요 활동지인 Pugara와 Dumpsite가 야외이기 때문에 하루에 반나절 이상은 햇볕아래에서 보내고 있으며,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팀원 모두가 구릿빛 피부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민재는 현지인과 같은 피부색을 갖게 되었고, 수민이와 민재는 강렬한 햇빛으로 인해 가벼운 피부질환을 겪기도 하였다.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활동일과가 끝나면 주로 YMCA 사무실과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내고, 꼭 하루에 하나 이상의 '할로할로'와 '아이스크림' 그리고 탄산음료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있다. 특히 12시부터 2시까지 가장 햇빛이 강렬한 오후에는 모두들 실내에서 낮잠을 청하는 휴식시간을 필수로 갖고 있으며, 팡가시안 팀원들도 이 시간을 활용해 낮잠을 자거나 재충전하는 휴식을 취하고 있다.

더운 날씨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하루에 여러 스케줄을 소화하는 한국에서의 삶과는 달리 이곳 팡가시안에서는 하루에 주요스케줄 하나를 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삶이 여유롭게 느껴졌으나, 차츰 필리핀 생활에 익숙해지고 더위에 지쳐감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스케줄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조차 기력이 부족할 때가 종종 있다. 가끔 더위로 인해 주저앉아 울고 싶다는 솔이는 아피하우스 밖에서 돛자리를 깔고 눕는 외식생활에 접어들었고, 최근 더운 날씨로 인해 '멍 때리는'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다. 팀원들 사이에서 껌돈을 모아 에어컨을 사는 것이 어떻겠냐는 농담들이 오갔지만, 동남아시아로 자원활동을 떠나는 라온아피를 지원한 이상 우리는 이 더위를 이겨내야 한다는 막내 수진의 발언에 나머지 언니, 오빠들은 더 이상 말문이 막혀 입을 열지 못했다.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한 아피들의 고군분투하는 아우성이 매일 밤 아피하우스를 메우고 있다.

- 후끈한 열기로 가득한 아피하우스 덕분에 현지인 친구들도 아피하우스에서의 취침을 거부했다는 후문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포기하지 못한 언니 오빠들은 'international cuisine competition'의 상금을 노린다는 후문이..

Part 2 . Atti House

3월 8일 팡가시안 ymca에 도착한 우리는 ymca 식구들과 인사를 나눈 뒤 아띠하우스로 향하였다. 첫 등장에 설렘을 가지고 들어서자 집은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있었다. 1층 거실과 2층 방으로 구성된 아띠하우스는 우리들에게 과분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남자 방에는 창이 없어서 모기가 들어올 것 같았다. 남자 2명은 그날 밤 모기에 물려 조기키국 할 것 같아 우리는 코디네이터인 알렌에게 요청해 모기장으로 그 창을 막았다. 그렇게 우리의 생활은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인양 ymca에서 생활한 것을 바탕으로 생활규칙과 식사, 설거지, 청소 당번을 정하여 로테이션 형식으로 생활을 시작하였다. 첫날의 추억이 생각난다. 물이 아침과 낮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설거지물과 변기 물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물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났다. 물과의 인연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열흘 정도 아무 불편 없이 적응하여 살았지만 물의 양과 질이 우리의 활동 외적으로 많은 힘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우리는 긴급하게 회의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진지한 서면 제출 서류를 만들어 우리는 코디 알렌에게 전달을 하였고 그날의 긴급회의로 인해 알렌은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 책을 제시했다.

물의 질과 양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대용량 정화물탱크를 설치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물론, 예산에 관한 승인 과정으로 인해 아직 집에 설치되진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이다. 우리는 현재 사실 YMCA에서 씻을 때도 있고 집에서 씻을 때도 있다. 그러나 물에 민감한 토니(태수)는 YMCA에서 꼭 씻는다. 아러던 중 아파하우스에 그것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퀴벌레. 검지 손가락만한... 길고 매끈한 바퀴벌레는 우리의 손빨래 장소인 다용도실에서 엄청난 속도로 휘젓고 다녔고 그날부터 우리는 필리핀의 바퀴약인 'baygon'과 친구가 되었다. 350ppm 캄페인을 잠시 잊고 바퀴벌레가 나타나는 순간엔 우리도 모르게 엄청난 양을 발사한다. 특히 테이지(수진). 꿈틀꿈틀 뒤집어져서 끝까지 발버둥을 치지만 조슈아(민재)의 손에 잡혀 그들은 외부 쓰레기통으로 던져진다.

열흘 정도 지내는 사이 우리는 이웃 친구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중 단연 최고의 연예인은 '지안 깔루'다. 그는 2세의 나이로 연신 '아떼 솔(솔이)'을 찾는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들의 입가의 미소를 자극시킨다. 저녁준비를 하는 동안 '아떼 민(수민)', '아떼 솔'을 연신 찾는 소리가 들린다. 깔루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 깔루 보다 더 빨리 등장시켰어야 할 우리 volunteers가 있다. 말루와 아르넬은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이다. 우리들과 음식도 같이 만들고 기타와 노래도 부르며 우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과의 밤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그날 활동의 종점을 찍는 순간들이다. 가끔씩은 조용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서로 영어로 의사소통하며 함께 웃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 옆집에는 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살고 그들과 나누는 인사는 수줍은 미소로 진심이 담겨져 있다. 그 순간이 하루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편안한 순간이 된다. 우리는 이제 적응이 되었다. 4월 달에는 우리 집에서 더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다..

Part 3 . Do you want to take a bath?

우리는 3월 달 시작과 함께 고민이 생겼다. 아파하우스에 도착해서 첫 날 아침과 낮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날 밤 씻는데 물에서 악취가 났다. 우리는 국제 자원 활동을 하러 왔기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감수하여 생활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그렇게 지내는 시간동안 우리는 잘 적응하며 사는 듯 했으나 물의 양과 질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흔들며 놓았다. 설거지를 할 때 싱크대에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다용도실에서 헹궈야 하는 상황,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 않아 다음 날 사용할 물을 받아놓는 상황 그리고 변을 본 후 그 물을 바가지에 담아서 3-4번 뿌려야 하는 상황, 여기에 물에서 악취가 나고 모래와 metallic 가루가 나오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은 더운 날씨에 활동하고 지쳐서 돌아온 아파들의 마음을 흔들며 놓기에 충분했다. 또한 그날의 당번활동을 하게 될 때는 물을 받아 놓은 다용도실에 한꺼번에 모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설거지와 빨래, 청소를 같이 하게 되며 위생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우리는 열흘 동안 살며 최대한 감수하여 살려고 했지만 결국 긴급대책회의를 하게 되었다. 사실 이 회의를 하기 전에는 코디네이터와 volunteers에게 농담 식으로 “여기서 물을 사용 못하겠다.”, “Do you want to take a bath?”를 연신 내 뱉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지쳐있던 우리는 진지하게 서면제출을 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물에 대해 현재의 상황, 지금 당장으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안했다.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코디네이터 알렌은 지미 총장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눈 후 정화물탱크를 설치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매끄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코디네이터 알렌 그리고 ymca와 이야기를 할 때 서로에게 마음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정확한 상황과 대안책을 이야기한 시간이었다. 알렌도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회의를 거친 뒤 **서면제출**을 한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웃으며 진지하게 받아주었다. 마음을 잘 이해하고자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고 서로의 마음을 진지하고 또한 상하지 않게 주고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민재와 수민이는 샤워기를 해체해서 필터를 다는 중...)

Suggestion.

1. Current situation at atti's house.

1) Quality of Water

① Odor

② Sandy and Metallic

⇒ Min is suffering from a skin trouble.

2) Quantity of Water

① NO WATER in the morning.

(including toilet, washing dishes, laundry and taking a shower)

Therefore, it might cause hygiene problems individually and in a daily life as well.

2. What we have tried to fix.

1) Set filters every single faucets in atti's house.

→ However, the filters don't stand durably / in a long time.

Those are broken easily in 48 hours.

We have already changed 5 filters and spent about P500 to buy it for a week. (small P.15 / large P.70)

2) Saving water in baskets.

→ 1 large basket, 3 medium baskets, and 2 small baskets.

With these, we have to complete using water for washing dishes, doing laundry, toilet and taking a shower even it is sandy and insufficient.

3. How YMCA PAGASINAN helped us.

1) Providing several filters.

2) Providing baskets.

⇒ THANK YOU SO MUCH

4. Suggestion / Solution.

1) providing filters every other day. (7 filters/week)
about P.500.

2) Installing huge filters (water softener) at CR and balcony in atti's house.

→ However, it might need a construction if we install filters to water valves in house.

3) Whole construction might be needed if other houses have a same problem with us.
(Maybe it is impossible..)

4) Moving out to new house.
if there is no way to fix this.

We are very sorry to announce this kind of problem.

We understand how YMCA sacrifice and work hard for Raonatti. We politely ask you to consider this problem for better days Raonatti voluntary service in Pangasinan.

SOLE KIM. JOSHUA KIM.
Daisy Jeong. Tony Kim Min Paik

15/03/2014.
Raonatti 11th.
Team Pangasinan.

긴급회의 소집 후, 우리의 의견과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제안 등등을 써서 제출했던 서면.

Part 4 . 음식

아파들을 이곳 필리핀에서 살아 숨 쉬게 하는. 아파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그것은 바로 음식!

다른듯하면서도 우리나라와 매우 닮아 있는 필리핀 음식에 잘 적응하며 점점 뱃살이 늘어나고 있는 단원들이 있는 한편, 장트러블과 복통으로 의도치 않게 화장실과 친분을 쌓게 된 단원도 있다고 하는데...

음식과 관련된 솔직 담백한 아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I. Too salty, Too sweet, Too oily

10기에게 전해 들어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혀끝을 자극하는 필리핀의 'Too salty, Too sweet, Too oily'한 음식을 처음 맛보았던 순간은 충격의 도가니. 그 자체였다.

대부분의 필리핀 음식은 한국에서 온 우리의 입맛에는 매우 짜고 달고 기름지게 느껴졌는데, 이런 음식들로 인해 서로의 통통 부은 얼굴과 손가락을 보며 그 새 살이 찼다고 오해한 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실 짠 음식들로 인해 부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이 찌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불편한 진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런 필리핀 음식에 그새 적응하여 “짜니까 맛있어. 맛짜람!”을 외치는 Tony와 Joshua.

Sweet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Sole과 Daisy.

한달 내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들로 고생하다가 결국 건강을 위해 4월 저녁 금식 선언을 선언한 Min까지.

팡가시난 팀은 각자의 방식으로 필리핀의 'Too salty, Too sweet, Too oily'한 음식에 잘 적응해나가고 있는 듯 하다.



II. 풍족하게 먹고 싶어, 배가 금방 꺼진다구!

(부제: 시도 때도 없는 Meryenda Time)

다양한 반찬을 골라 먹는 한국과는 달리 단 하나의 반찬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필리핀의 식문화는 아직 아파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밥 한 공기를 똑딱 하고도 2% 부족한 느낌**, 분명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3시간 후 다시 울리는 배꼽시계 때문에 우리는 Meryenda Time(간식 시간)이 더욱 간절해 졌고, 급기야 Tony는 매일 저녁 10시가 넘는 시간에 다양한 종류의 Meryenda를 권하고 있다.

-우리가 즐겨먹는 Meryenda : 할로할로, 세븐일레븐 아이스크림



III. Min, Bangus international cuisine

경연대회의 참가를 선언하다!

4월 한 달 간 우리가 머무르는 이곳 다구판시티에서는 Bangus festival이 열리는데, 축제 기간 중 개최되는 Bangus international cuisine 경연대회에 팡가시안 팀의 요리사 Min이 참가의사를 표명했다.

Bangus를 가지고 한국적이면서도 필리핀 입맛에 맞는 멋진 요리를 탄생시키기 위해 현재 Min은 발품을 팔며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에 나섰다는데 ...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를 통과해야 최종 TOP 10에 들어 비로소 요리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아주 큰 요리경연대회이지만 팡가시안 팀은 벌써부터 Min의 우승을 기대하며 김칫국 듬뿍 마시는 중 :)

Bangus international cuisine 경연대회 준비 이야기는 4월 보고서에 자세히 신도록 하겠다.

* Bangus : 청어와 비슷한 류의 등푸른 생선



3월의 추억

Winter Camp

DAGUPAN CITY NATIONAL HIGH SCHOOL 방문

3월 10일 활동 첫 날, 그날은 pangasinan ymca 맞은편에 있는 DAGUPAN CITY NATIONAL HIGH SCHOOL의 개교기념일이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필리핀의 학교는 개교 기념일을 맞이하면 학생들의 공연을 비롯하여 축제로 모두가 즐기는 날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학교에 방문하여 선생님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찰칵~



우리 결혼 했어요. (sole, daisy)



페인팅도 해보고. (Joshua, Daisy)



똥땡님. 전 우주비행사가 될래요.
과학교실에서.. (Sole)

Tondaligan beach

<엔지니어 클로렌스를 만난 날>

덤프사이트 방문했을 때 우리는 엔지니어 클로렌스를 처음 봤다. 우리는 그와 덤프사이트와 블루하우스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덤프사이트 옆에 위치한 Tondaligan beach로 데려가 팡가시난에 왔음을 바다의 냄새로 알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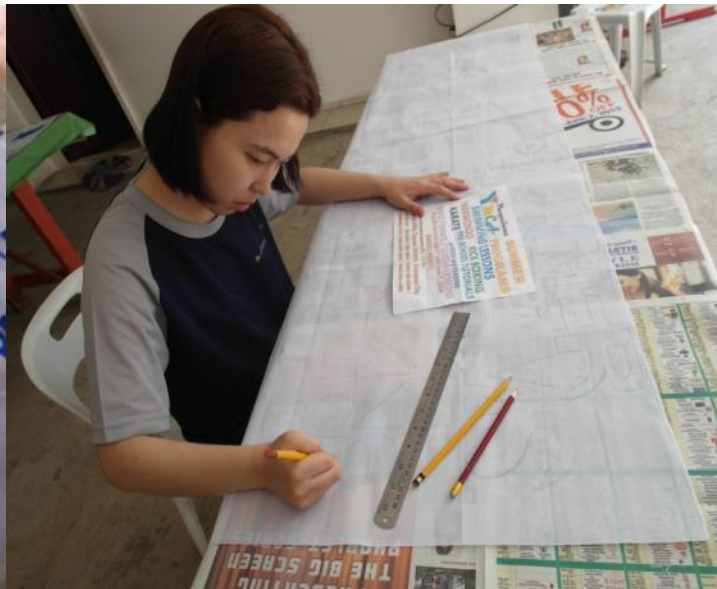
덤프사이트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엔지니어 클로렌스와 덤프사이트 근처의 Tondaligan beach에서 찰칵(단체 컷)



우리가 왔다~(daisy, joshua)

Y에서 SUMMER CLASS 현수막

한가로운 토요일 우리는 YMCA를 갔다. 그곳에서 손수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기회가 왔는데 수민이와 수진이가 먼저 과감하게 시작하였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우리의 플래카드 페인팅 작업은 오후까지 지속되었고 각자의 성격을 보여주는 모습 연출~



처음 시작은 좋았지!? (수민)
[완성한 후, 눈 빠질 뻔했다...]

내 꼼꼼한 성격 보여주지 ~ (수진)

완.성. (조슈아와 수진)

Sta. Cruz 마을 방문

파가시안 YMCA는 일본 YMCA와 협력하여 산타크루즈 마을에 상수도 공사(펌프)를 진행하였고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이 펌프가 아무 문제없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타크루즈 마을 이장님 식구들과 저녁을 먹고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가졌고 그날 이장님의 자녀의 생일로 모두가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Sta. Cruz 이장님 식구들과 한 컷



나 좀 봐줄래?



Atte~~~~ Ku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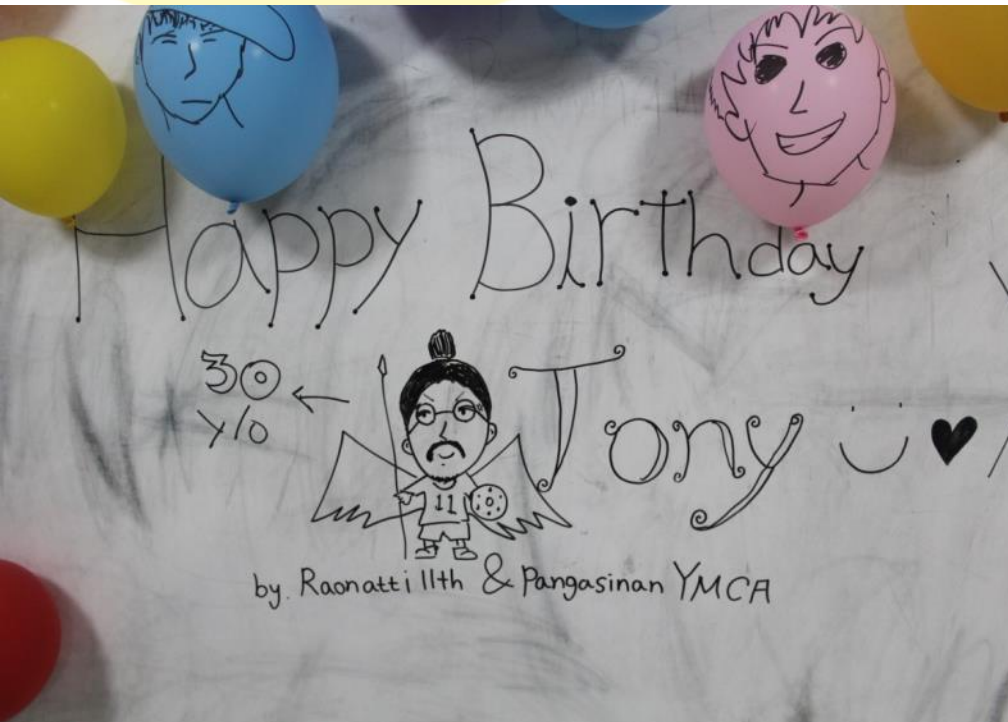
GMA 방송 인터뷰

Pugaro에서 축구 골대를 만드는 중 한 필리핀 방송국(GMA)에서 이곳에 취재를 왔다. 이곳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며 필리핀 가지 국제 자원 활동을 온 라온아디에 대해 궁금했던 GMA는 인터뷰를 요청했고 우리는 응했다. Sole과 코디네이터 Alen은 인터뷰를 하였고 그 날 필리핀 전역엔 Sole Kim의 인터뷰가 방송되었다. 방송 데뷔한 Sole은 한 필리핀 팬으로부터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오기까지 했다.



Tony's birthday

토니는 1988년 3월 28일생으로 라온아띠 PANGASINAN에서 연장자다. 그는 뜻 깊은 날을 파강가시안 YMCA 식구들과 라온아띠 친구들과 함께 27세를 맞이하게 되었다.



DAISY는 그림도 잘 그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제레미 graduation

유독 검은 피부로 인해 Choco로 불리는 제레미는 팡가시난 Y의 스콜라 학생이며 그와 동시에 모든 일을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이다. 그는 팡가시난 Y에서 약 30분 떨어진 LINGAYEN에서 학교를 다닌다. 이번 년도에 졸업을 하는 그는 자신의 대학교 졸업식에 우리 라온아띠들을 초대하였고 그곳에서 필리핀 졸업식 구경과 함께 제레미를 진심으로 축하해 준 자리를 가졌다.

졸업식을 마치고 우리는 LINGAYEN BEACH로 가서 바다 냄새를 맡고 제레미의 초대로 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모처럼 여유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 태수 - (tony)

3월 달의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엄청 빨리 지나갔다. 앞으로의 시간도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 갈 것만 같아 기분이 묘하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하니 정리가 잘 안 된다. 더불어 어렵게 많은 고민 안하는 나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다. 3월 달은 관계를 맺는 중요한 달이었고 적응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저 필리핀 문화와 친구들에 집중을 한 것 같다. ymca 친구들과 그리고 주만들, 아이들과 관계를 맺을 때면 초등학교 학년 입학했을 때의 느낌, 3월 달의 느낌이 들었다. 처음 친구를 만날 때의 긴장감 그리고 어색함, 낯선 느낌, 이 모든 것이 나의 첫 시작의 느낌이 들었다. 적응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했으니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람과 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하였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활동한 주 활동지는 pugaro(섬)와 dump site(쓰레기 매립지)였다. 처음 갔을 때의 모습은 그저 평화로우며 조용해 보였고 마치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았다. 그들이 우리를 맞아줄 때의 웃음은 진짜였을지도 모른다. 팡가시안으로 오기 전 나는 나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졌다. 출국 전 캠프에서도 이야기 되었던 '그냥 살다오면 된다.'와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 하러 가는 것인가?' 라는 두 질문 사이에서 내 고민은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 고민을 가진 채 3월 달을 지내면서 '라온아피'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김 태수 _ (tony)

아무 거리낌 없이 마음 대 마음으로 놀 수 있는 것이 친구라고 생각을 하였고 '좋은 친구가 되자' 아니 '즐거운 친구가 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ymca 친구들이나 지역주민들 그리고 아이들과 즐거운 친구가 되고자 마음을 열었다.

분명 친구의 기준은 각자 다를 것이다. 일방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었다고 해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섯달 잠깐 있다 가는 게 친구일까? 라는 의문을 잠시 품었지만 모든 것은 사람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온 마음 정성 다해 마음을 열고 서로 느끼는 무언가가 있다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서로 무언가를 미묘하게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친구가 되고 싶다.

3월 달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4월 달 활동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3월 달 어색하게 친구이름 부를 수 있고 인사할 정도의 관계를 형성했으니 이제 놀 차례야. 밤에 불 끄고 누웠을 때 내일이 기다려지는 설렘을 갖도록 4월 또한 재밌게 지내 볼 생각이다.

김솔이 _ (5♡)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더위 때문 인건지 아니면 머릿속에 넘치도록 많은 생각 때문 인건지. 오늘도 아침부터 dumpsite를 시작으로 그 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표정, 그리고 우리 팀원과 나눈 이야기들, 현지인 친구와 투닥거리며 신경을 날카롭게 세운 일들이 하루 종일 마음에 걸린다. 필리핀 땅가시난에 도착한지도 만 1개월, 초심을 다지며 비행기에 올랐던 순간이 이제는 가물가물하다.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했는지 대답해야 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분명 망설일 것이다. 매일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감정을 나누는 일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활동하는 것도, 가족보다 막역해진 팀원들과의 삶도 머릿속에 복잡하게 섞여 단숨에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단 하나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위해 살고 사람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것.



김솔이 - (5♡)

라운아디에 지원하던 순간부터 수차례 훈련을 거쳐 지금 현장에 있기까지, 내가 바라고 바랐던 삶에 대한 답을 이곳에서 찾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중이다. 그 시작을 라운아디로, 그리고 이 뜨거운 필리핀에서 할 수 있어 감사하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작은 섬마을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덤프사이트에서 아이들을 한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것처럼 내 안의 작은 변화가 실감날 때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 무엇 하나 불편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곳 사람들의 삶에 더 녹아나길 기도해본다. 하루하루가 너무 값지고 소중하다. 그냥 흘러보내기 아까워 시간을 붙잡는 심정으로 매 순간 마음을 다 잡는다. 나를 힘들게 한 티위도, 물도, 피부병도 그리고 사람들도 내게 흔적을 남기듯 앞으로 맞이할 이곳에서의 날들도 내 몸과 마음에 간고도 진한 흔적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백수민 - (min)

#FIRST#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24년을 살았고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이 곱게 자라온 나에게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3월.
필리핀에 온 것도, 인솔자 없이 해외에 나와 장기 체류하는 것도, 온전히 내 힘으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난생 처음 접해보는 따갈로그도!

#Daily episode

공항에 내려 밖으로 나왔을 때, 딱 한 가지 생각만 들었다. 덥다!!!!!!!!!!!!!! 더워!!!!!!!!!!!!!! 미리 엄청 덥다고 들었지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피부에 와 닿았다. 자외선이 강해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게다가 한국에서는 이제 막 눈이 내리고 추운 겨울을 나고 봄이 오려 할 쯤 떠나와서 인지도 무지 적응되지 않았다. 설상가상, 나는 웬만해서는 땀이 잘 나지 않는 체질이라 36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에 땀은 나지 않고, 음식은 짜고, 목은 마르고... 상상 이상으로 몸이 부었고, 손가락 마디의 주름 절반이 없어질 정도로 부었다. 2주정도 지나니 붓는 정도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 다행이지만 여전히 힘든 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다. 더워서가 아니라 몸이 붓는 것이 날 더 힘들게 한다.

필리핀 와서 놀랐던 것, 싫은 것은 온 거리를 메운 지프니와 트라이시클, 그리고 신호등이 있지만 쓰지 않고 그냥 막 다니는 거리. 육교가 있음에도, 차가 달려도 그 거리를 무단 횡단하는 것이 일상인 이곳. 딱히 중앙선이라는 것도 없이 양방향으로 다니고 쉴 새 없이 지프니와 트라이시클 기사들의 호객행위가 날 놀라게 했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당황스럽고 무섭다.

백수민 - (min)

한국에서도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먹지 않던 것들인데, 필리핀에서는 매일같이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는다. 필리핀에 와서 며칠은 괜찮았지만 2주차부터 음식만 먹으면 위가 아프고 밑으로는 다 쏟아 냈다. 급기야 3주가 지난 3월말에는 속이 좋지 않아 다 쏟아내고 가운도 없는데 통증까지 있어서 잠도 못 잘 정도였다. 지켜보다 병원에 갔는데 혹시 모르니 대변을 받아오라며..... 작은 통을 주었다.

Y스텝이 데리고 가서 통역을 해줬는데 너무 창피했다 7777777777

그냥 허탈해서 웃음만 나왔다..... 대변검사라니..... 한국에서도 못해본 대변검사라니.....

당황스럽고.. 어려웠지만... 어쨌든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열심히 가져갔는데 검사는 5분도 안되어서 끝났다. 다행히 검사한 결과, 식중독과 같은 세균성 질환은 아니었지만, 고기를 잘 소화시키지 못해 장기에 부담이 간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으로는 채식위주의 생활을 따로 할 것 같다. :)

#처음이라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많았던 3월.

매연이 어마어마한 길거리에서 파는 밥과 음식들,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만드는 간식들... 전공이 식품공학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웬만해서는 길거리 음식을 사먹지 않던 내가 조금씩 나만의 기준을 내려놓으며 적응해 가고 있다. 이런 내가 너무 기특하고, 예상치 못했던 현지친구들과의 해프닝도 하나씩 경험해 가면서 성숙해지는 것 같아 뿌듯하다. 여전히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앞으로 배워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다.

백수민 - (min)

#DUMP SITE.

다른 나라의 팀들보다 우리 팀은 활동을 빨리 시작했다. 상상 속의, 비디오로만 봤던 쓰레기 매립지를 간다는 생각에 너무 걱정이 많이 되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일까, 냄새는 어떡하나' 이런 사소한 걱정부터 시작됐고 처음 갔다 온 날, 첫 회의 때 현지 코디의 오늘 어땠느냐는 물음에 답변하다 울어버렸다. 아직도 그 감정이 생생해서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울컥한다. 아직도 내 안에서는 그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 나에게서 충격적인 그들의 삶. 낡은 나무 아기 침대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제 막 걸을 것 같은 아기의 얼굴과 온몸에 둘러친 파리. 벌레와 환경에 방치되어있는 아이들의 상처. 물이 부족해 씻지 못한 아이들. 그런 상황에서 다른 팀원들은 "KUMUSTA KA?(How are you?)"라고 묻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웃지도 못했다.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회의하면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던 것 같다. 그런 환경을 처음 접했고,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했다고... 내가 과연 그 상황에서 웃으며 안녕하냐고 묻는 것이 실례 같았고 냄새와 같은 작은 부분은 별 개의치 않았지만 사랑 받고 즐겁게 놀아야 할 예쁜 나이의 아이들의 상황이 나에게서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백수민 - (min)

그렇게 Dump site의 첫 경험이 지나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곳을 가는 시간이 가다려지고 행복하다. 한 달이 다 되어갈 때쯤, 팀원 한 명이 생활 나눔 시간에 내가 가서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여서 놀랐다고, 처음 다녀와서 울었고 가기 싫어했는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했다고 한다. 나는 모든 부분에서 남들보다 예민한 탓에 남들보다 모든 것을 빨리 느끼지만 오히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듯 지금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재미있고 행복하다. :)



백수민 - (min)

#4월도 즐겁게!

보고서를 마감하는 오늘, 4월 28일에 열리는 International Bangus Cuisine에 등록을 하고 레시피를 내고 왔다. 자세한 규칙을 몰라서 단순히 경연대회라고 생각하고 참가한다고 했으나, 등록을 하고 한화로 4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나서야 한국을 대표로 반구스라는 생선을 이용한 300인분의 요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손에 주어진 어마어마하게 큰 돈과 공문에 주한대사관을 VIP로 초청해서 첫 시식을 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영광스럽고 떨리기도 하고 흥분된다. 경연대회가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편하다가도 한국을 대표하는 부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엄청 떨리기도 한다. 무튼!!! 행복하고 즐거운 4월이 되고 싶다! :D

너무 두서없이 에세이를 쓴 것 같다. 아마도 아직은 살아남기 위해 적응하는 중이고, 생각하는 시간은 많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공대생인 나는 딱히 국제활동을 하고 싶어왔다기 보다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살아보고 싶고 생활해보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나는 필리핀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고 즐겁다.



김민재 _ (Joshua)

#"나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곳 필리핀 팡가시난에 도착한 후 아디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내가 가장 먼저 내 머리를 두드렸던 의문이다. 이곳 필리핀 팡가시난에서 내가 무엇을 잘 하고, 어떤 활동을 잘 할까에 대해 고민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곳에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 먼저 고민이 되었고 걱정이 되었다. 본래 몸에 열이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 여름이 되면 금방 지치고 더워서 헉헉 거리는 나인데 여기 필리핀의 더위는 한국 여름의 더위보다 더했다. 게다가 4월부터 시작되는 필리핀의 여름. 땀도 많아서 샤워를 자주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아디하우스에서는 낮에는 물이 아예 나오지 않고, 저녁에는 물이 나오지만 그 물은 모래와 철가루가 섞여서 나와 말끔히, 개운하게 샤워를 하지 못하였다.

3월 8일에 도착한 이곳 팡가시난. 일주일만은 매우 우울하게, 정말 이곳에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만을 품은 채 지냈었다. 국제개발과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에 열정을 느껴 실제로 현장에 나아가 활동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라온아디에 지원도 했었지만, 사실상 정신 없이 경쟁에 치이는 한국과 한 번도 쉬지 못한 채 달려왔던 공부에서 벗어나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라온아디를 지원한 마음이 솔직히 더 컸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지, 내가 기대했던 여유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이 과연 있을지 걱정이 되었었다.

김민재 _ (Joshua)

#첫 만남, 덤프사이트 안녕?

덤프사이트에 처음 찾아갔을 때 나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는 검은 파리 안개.

쓰레기 더미에서 곡괭이를 들고 쓰레기들을 파헤치며 쓸 만한 것들을 찾아 다니는 어린아이들.

판자와 상자 껍질로 만든 집에서 자고, 먹고, 마시며 생활하고 있는 덤프사이트의 주민들.

코를 찌르는 악취, 모래 바닥이 아닌 쓰레기를 밟아야 걸어 다닐 수 있는 이곳 덤프사이트.

옆의 푸른 바다와 위의 아름다운 하늘과는 매우 대조되는 덤프사이트를 보며 한숨만 났었다.

내가 이곳에 과연 왜 온 것일까.

생활 하는 것도 어려운데다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심란해지기만 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전공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가졌다.

국제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책을 읽고 공부하고 나름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던 나로서는 이런 상황이 도저히 내게 용납되지 못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공부한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이런 사실을 몰랐었다면 더 편하게 공부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머릿속에 가득 찼었다.

팡가시난과의 첫 만남이었던 1,2주는 내게 있어서 절망과 좌절, 그리고 많은 고민을 던져 주었던 시간이었다.

김민재 — (Joshua)

고민, '행복의 조건, 감사의 조건'

행복이라는 단어의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고, 감사한 것은 또 무엇이며,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
언제부터가 행복과 감사의 조건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조금씩 익숙해지는 덤프사이트의 환경과 모습들.

그 속에서 사람들의 미소와 웃음을 발견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미소 짓고 신나게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장난치며 놀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나의 렌즈를 통해서 이들은 도저히 행복해 할 수 없어 보였고,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행복이라는 조건은 그러면 무엇을 통해 오는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행복이라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모두 충족이 될 때, 혹은 깨끗한 물과 기분 좋은 온도, 그리고 편한 침대가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일까? 내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상황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적어도 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상황, 그리고 조건은 편하지 않았으며 풍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미소를 보고 아이들의 기분 좋은 웃음소리, 활기찬 모습들을 보면 나도 덩달아 점점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따듯해 졌다. 행복과 감사의 조건. 아직은 명확히 그 조건이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느꼈던 편함과 풍족함은 아닌 것 같다.



김민재 _ (Joshua)

덤프사이트에 화재가 났었다. 아주 큰 불이 났었던 터라 아직까지도 제대로 진화가 되지 않았고, 덤프 사이트는 뿌연 연기가 몇 주째 계속 앞을 잘 못 볼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날 그 어떤 때보다 연기가 심했던 날이 있었다. 앞이 정말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숨이 막힐 정도였다. 이런 연기들을 겨우겨우 해쳐서 아디 클라세를 알리러 마을로 들어가다가 한 아주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고 몇 번이나 외치는 아주머니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동을 받았다. 그날 너무 연기가 심해 몇 초간 호흡곤란을 느낄 만큼 상황이 나쁜 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께 감사하다고 처음 보는 외국인을 붙잡고 이야기 하는 이 아주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나는 본래 한국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감사함이 무엇에 기인해서 감사하다고 쉽게 말했던 것이었는지, 진정한 행복을 통해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앞으로 남은 4개월간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고민을 더 깊이 할 수 있고, 올바르게 질문하는 법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김민재 _ (Joshua)

#시간 너 참 빠르다.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벌써 3월이 지났고, 에세이를 쓰고 있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한 달 동안 뜨거운 태양에 그대로 노출되어 고스란히 갈색으로 그을린 내 피부를 볼 때마다 현지인과 같은 피부색이 되어가고,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지 못하는 그 사실이 즐겁고 기쁘다.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변해버린 내 피부색처럼 더욱 이들과 함께 동화되고 내가 함께 있어도 전혀 어색해지지 않는, 정말 친구가 되어가는 것 같아 그 한 달의 시간이 너무나 값지다. 무언가를 하겠다는 교만과 욕심을 가졌던 나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의욕만 잔뜩 가졌던 나의 모습에서 행복과 감사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사람들의 미소를 발견하고 그 웃음소리를 통해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던 3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통해 내가 또 어떤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할지 기대가 된다.



점수진 - (daisy)

라온아띠 자기소개서에 썼던 문장이 문득 생각이 난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채울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은 그런 나의 부족함이 뼈저리게 느껴져 너무나도 좌절 했던 한 달이었다.

Dumpsite

여느 때처럼 Dump site를 방문한 날이었다.
그런데 마을 어르신들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알고 보니 오늘 아침, 마을의 어느 한 어린 아이가 화상으로 오른쪽 발 전체에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한다. 상처의 정도는 한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심각했지만, 화상 후 응급 처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먼저 코디네이터 Alen에게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맞다 판단이 되었기에 우리는 일단 그 아이를 그 곳에 그대로 두고 Blue house로 Wound treatment program을 위해 이동했다.



점수진 - (daisy)

그러나 그곳에서 또 한 번 나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한 한 아이. 그 아이는 온몸에 피부병이 번져 있었고 너무 많은 상처 부위로 인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이 광경을 접하면서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많은 생각들, 그리고 두려움.

‘ 이 아이들이 많이 아프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

‘ 이쪽과 관련된 전문가가 없는 우리 팀이 이곳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상처치료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도 위험한 일은 아닐까? ’

모든 프로그램을 끝마치고 Dump site를 나오는 길. 3년 동안이나 간호학을 공부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기본적이고 간단한 처치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과, 이 아이들과 이 곳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대체 무엇인지 라온아띠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Are you okay?"라는 Alen의 물음에 " I can't do anything. I don't know everything. " 이라는 말을 남기고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어떠한 활동이든 그 활동 ‘자체’가 아니라 활동에 참여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어떤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라온아띠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것.

머리로만 이해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내게 아직 너무도 어렵고 복잡한 일인 것 같다.

점수진 - (daisy)

언어

영어, 따갈로그어, 팡가시난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에 둘러싸여 생활해야 했던 지난 한 달은 나를 더욱 더 좌절감에 휩싸이게 했다. 특히 영어!!

따갈로그어와 팡가시난어는 팀원들 모두, 시작점이 같은 그야말로 '생 초짜'였지만 평소 영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나는 필리핀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크게 애를 먹어야 했다. 하루 종일 영어 듣기 평가 중인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에서부터, 우리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인사들을 찾아뵙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영어를 잘하는 다른 팀원들을 바라보며 도움의 손길을 청해야 했고, 현지 친구들과 때론 농담이 아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순간에도 간단한 일상 대화조차 매끄럽지 않은 나의 영어실력 때문에 입을 열기가 두려웠다. (이런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해 Tony 오빠와 '모든 대화 영어로 나누기 내기', '영어 단어 study'를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모두 하루 만에 포기했다는.....)

물론 지금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보다 미세하게 대화 실력이 나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 현지 친구들과 능수능란하게 대화하고, 활동지에서 만나는 많은 어린아이들과 더 이상 Kumustaka?(How are you?)가 아닌 더 많은 대화를 하며 가까워 질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는 매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듯하다.



A solid blue background with decorative clusters of squares in the corners. The top-left and bottom-right corners have small, sparse clusters. The top-right and bottom-left corners have larger, more dense clusters of squares of varying sizes, creating a pixelated or mosaic effect.

Thank you!
Have a good day!